"NH농협의 미래 성장축은 디지털·글로벌… 로드맵 마련"

〈올 9월까지〉

김광수 회장 취임 1주년 특별대담

사내방송서 직원과 소통 가져
체질개선·성장·농산업·인재
2기 농협금융 운영방향 제시
미래금융기관 생존 준비 당부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사내방송 특별대담으로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히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송은 오는 14일 방영될 예정이다.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이 2기 경영의 키워드로 체질개선과 미래성장 기반 마련, 농산업 가치제고, 인재양성 등을 내세웠다.

9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은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대신해 사내방송 특별대담으로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히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취임 당시 농협금융의 변하지 않는 기본으로 ▲수익창출력 ▲고객신뢰 ▲협업 ▲미래를 위한 혁신 등을 키워드를 제시한 바 있다.

성과는 가시화됐다.

리츠운용 설립을 통한 부동산금융 진출, 증권 발행어음 및 캐피탈 렌터카 사업개시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했으며, 각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중장기 균형성장을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장기적인 수익창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투자성향과 리스크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NH빅스퀘어'를 구축하고, 고객정보 보호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고객신뢰 경영도 자리를 잡았다.

김 회장은 자회사간 협업으로 국내외 투자금융(IB)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금융·경제 부문을 연계해 범농협 'NH멤버스'를 구축하는 등 시너지 창출 역량을 강화시켰다. 혁신의 일환으로는 '24시간 잠들지 않은 은행' 구축 및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하는 등 미래 금융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됐다.

그는 사내방송을 통해 "청년시절로 돌아간다면 농협에 입사해 프로 금융인의 삶을 살고 싶다"며 "지난해 역대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사업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데 대해 그동안 묵묵히 어려움을 견뎌낸 임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전국의 영업점과 해외 점포를 다니며 최일선 직원들과 함께한 소통의 시간을 가장 소중한 일로 기억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 초 강원도 고성·속초 현장경영 첫 날 산불이 발생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하는데 동분서주했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향후 2기 농협금융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체질개선 ▲미래성장 기반 마련 ▲농산업 가치제고 ▲인재양성 등을 키워드를 새롭게 제시했다.

김 회장은 "체질개선은 자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각 자회사가 본연의 사업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 기반 마련의 큰 축으로는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전환과 글로벌 진출을 꼽으며, 미래 금융기관의 생존을 위해 빠르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지주와 금융계열사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해 부문별 비즈니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플랫폼화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사업포트폴리오, 업무프로세스, 채널 및 조직구조 등 경영전반에 대한 디지털화 전략과제를 만들어 향후 3개년 실행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사업은 해외 파트너사와 최적의 합작모델을 발굴해 연내 가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농산업 가치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농업인과 농식품 기업의 발굴 및 투자, 운영자금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농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토탈 금융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금융의 일환으로는 각 자회사의 개별 투자 프로세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결합해 농산업과 디지털 분야에 대한 농협금융만의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혁신금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고경영자협의회 내 혁신금융추진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김 회장은 "최근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신인류)로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디지털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스마트폰 문명에 대응해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물론 임직원이 종합자산관리 컨설턴트로서의 전문 역량을 배양하는 등 빠르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고객의 자산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 영역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프랑스 아문디(Amundi)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투자 플랫폼을 공유하고, 헤지·대체운용 등 특화 영역의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우리가 나무를 이용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과거 누군가가 묘목을 심었기 때문"이라며 "미래의 농협금융을 위해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농협금융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부단한 자기혁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기업 예금 확대… 3월 시중통화량 6.8% ⬆

2753조5000억… 증가폭 커져

지난 3월 시중 통화량 증가세가 다시 확대됐다. 기업이 법인세와 배당금 지급을 위해 자금을 예치해둔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3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의통화(M2)는 2753조5000억원(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1년 전보다는 6.8% 늘었다.

M2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으로 현금을 비롯해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와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M2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6.8%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1월 6.5%로 낮아진 데 이어 2월 6.2%까지 줄었지만 3월 다시 늘어났다.

상품별로는 가계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13조8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이 기업자금을 중심으로 6조2000억원, 2년 미만 금전신탁은 6조원 증가했다. 다만 수익증권은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8000만원 줄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부문이 법인세 납부와 배당금 지급을 위해 자금을 예치하며 12조6000억원 상승했다. 가계와 비영리 단체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김희주 기자 hj89@

국내 금융기관 최초 영업점 "새출발 다짐"

우리은행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

지역상인 지원 등 인천 경제발전 기여
인천 청소년 자립지원 후원금도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8일 인천지점에서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개점 행사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인천지점의 새로운 출발과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본인의 핸드프린팅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권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사장(신부), 박남춘 인천시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 안상수 국회의원, 김영제 NKG 대표이사.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지난 8일 인천지점에서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이용권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사장(신부), 김영제 NKG 대표이사 등 인천지역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우리은행 120년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인천지점은 1899년 1월 설립된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의 첫번째 영업점으로 같은 해 5월 10일 인천 중구 신포동에 개점했다. 국내 금융기관 최초의 영업점인 인천지점은 지역상인의 활동을 지원하며 인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20년 인천지점의 새로운 출발과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행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와 공헌의 의미로 '인천지역 청소년 자립지원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손태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지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지역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 저녁 7시부터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서 '위 빌리브(We Believe) 동행콘서트'가 진행됐다. 위 빌리브 동행콘서트는 우리은행 창립 120주년과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2000여명의 관객이 찾았다.

/홍민영 기자 hong93@

빅데이터 기반 상담… '우수 콜센터' 등극

신한은행 16년 연속 선정

신한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9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16년 연속 우수 콜센터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콜센터 좌석 수가 30개 이상인 275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초(超)맞춤형 상담서비스 ▲디지털 신(新)서비스 확대 ▲가상 상담원 도입 ▲따뜻한 금융 실천 등 탁월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에도 우수 콜센터에 선정됐다.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의 '초맞춤형 상담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통합 상담플랫폼을 통해 운영된다. 분석된 고객들의 거래 패턴들을 바탕으로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최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가상 상담원을 도입해 고객상담센터의 연체안내, 대출상품 스마일콜 등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서 후원금

NH농협은행 남영수 부행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에 참석해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식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생신 어르신 케이크 컷팅식과 후원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남영수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